화순 '귀농인 로컬 팜 마켓' 안정적인 판로 역할 '톡톡'

농특산물 무인판매장 개장 1주년 기념행사

11일 화순군 만연산 생태숲 공원에서 의미 있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화순군은 귀농·귀촌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인 농특산물 무인판매장' 개장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4월 만연산 생태숲 공원에 문을 연 '귀농인 농특산물 무인판매장(이하 로컬 팜 마켓)'은 귀농인의 새로운 로컬푸드 판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개장 이후 17개 농가가 신선하고 안전한 33가지 품목의 로컬푸드를 무인 판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로컬 팜 마켓은 월평균 매출액이 500여만 원으로 귀농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사)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박병기)가 운영·관리하는 로컬 팜 마켓에서는 채소, 잡곡, 작두콩, 유정란, 꿀, 아로니아 등 제철마다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365일 만날 수 있다.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구충곤 군수는 "무인 로컬 팜 마켓이 귀농인의 소득 창출뿐 아니라 귀농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우리 군의 귀농·귀촌 성공사례를 알리는 데 효과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농업인과 귀농인이 함께 땀 흘려 일구는 '상생'

농업인학습단체 · 귀농인단체, 상생 협력 고구마 심기 행사 개최

담양군이 9일 농업인과 귀농인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단체와 귀농인 단체 회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고구마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농촌지도자 담양군연합회와 담양군 귀농귀촌협의회를 포함한 5개 단체 임원과 회원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참여해 휴경지 2,600㎡를 고구마 소득 작목 확대 시범포로 탈바꿈시켰다.

한국농촌지도자담양군연합회는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농산물인 고구마의 우량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귀농인과 함께하는 행사로 계획, 무안군의 고구마 종순 재배단지 '베니하루카'를 벤치마킹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4월 17일 개최한 담양관광호텔에서 '담양군 농업인학습단체·담양군귀농·귀촌협의회 멘토링 협약식' 이후 농업인과 귀농인 간 상호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 만남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착하기 위해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진행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귀농한 사람은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귀농 관련 정책과 다양한 사항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전국 제1수국수출지 강진군, 화훼시장 강자로 '우뚝'

저온수송차량 13대 시승식

강진군은 지난 10일 강진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2019년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원받게 된 저온수송차량 13대의 시승식을 개최했다.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대표 김양석) 주최로 열린 시승식 행사는 법인회원, 화훼산업 관계자 및 이승옥 강진군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린화훼 김양석 대표는 "그동안 절화수국은 일본 현지에서 네덜란드산에 비하여 수출과정에서 신선도 유지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는 실정이었지만 이번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공모사업으로 4억 3천만 원을 확보해 저온 저장고 7동과 저온 수송차량 13대를 지원받게 되었다. 저장·수송 등 저온 유통체계가 완전하게 구축되어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린화훼영농조합은 10년 전 절화수국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누적 수출량 53만본, 27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20명 회원농가와 4.9ha의 재배면적으로 총 생산량의 45%, 국내 대일 수출물량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강진의 대표 화훼생산단지이다.

또 수출 소비시장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고품질의 규격화된 수출용 수국 맞춤형 생산을 위해 선진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화훼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팜파티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에도 힘을 쏟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농산물 전문생산 최우수단지'로 선정되었다.

그린화훼영농조합은 더 나아가 올해에는 절화수국 생산 및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등 4개 사업에 참여·선정 되는 등 생산시설 확대와 유통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여수시,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지원 사업' 추진

여수시가 민간 소유 남·녀 공용 화장실에 대한 분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사업대상은 남·녀 공용 화장실로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 화장실이다. 개방 화장실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 지원 후 최소 3년 이상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1000만 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8일까지 여수시청 기후환경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기후환경과(061-659-38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영암군-CY그룹 농축산물 판로 위해 업무 협약

전국 어디서나 영암 농축산물 판매시스템 구축…농가소득 기여

영암군은 지난 9일 서울 CY그룹 회의실에서 영암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유통을 통해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CY그룹과의 상생협력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CY그룹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롯데그룹 유통매장에 농·축·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벤더업체로서 불가리아, 홍콩, 대만, 일본 등 국외에서도 핵심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1972년 창립된 유통 전문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동평 영암군수와 조정기 의장, 유나종 부의장, 그리고 CY그룹 최현열 명예회장 및 유통부문 김태화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암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유통활성화와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교육·홍보 강화 ▲지역 농·축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공동브랜드 활용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상호 협력 ▲영암지역 농·축산물 유통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발전방향 협의 등을 합의했다.

또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관련 기관의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최대 유통 판매망을 확보한 CY그룹과의 우수 농축산물 유통을 위한 협약 체결을 계기로 농업강군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영암군은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지역 농산물을 입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통령상에 빛나는 매력한우와 전남 10대 고품질브랜드쌀(총 16회)에 선정된 달마지쌀골드 및 무화과, 대봉감, 멜론, 영암배 등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수 농축산물을 선보일 계획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흥군, 한우사양기술교육 개최

장흥군 축산사업소(소장 김성호, 장흥한우융복합산업화사업단장 겸임)는 지난 9일 천연자원연구센터 대강당에서 한우질병예방 및 관리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우 농가의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 꼽히는 송아지설사부터 어미소 질병까지 심층 교육이 이뤄졌다.

2회차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김의형 박사가 강사로 나섰다.

지난 1회차에는 한우 번식에 가장 중요한 인공수정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우개량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3회차 한우 비육기술, 4회차 한우 번식과 개량방법, 5회차 한우 사료급여기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한우농가들이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사양기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흥한우융복합산업화사업단 관계자는 "한우 사양기술 부분에서 번식, 비육, 사료급여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질병이나 번식장애만큼 순간적인 큰 손실이 되는 것은 없으므로 평소 지속적인 관찰과 축사위생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사전 질병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송호빈 기자